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고도화

전북대RICE연구센터 기획과제, 산학연 콜라보 R&D 컨소시엄형 과제 선정돼

전북대학교 전북RICE지능화학신연구센터(센터장 정용재 교수)가 전북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공동 기획한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산업의 고도화' 과제가 산학연 Collabo R&D 컨소시엄형 과제에 선정됐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의 '지역지능화학신산업양성사업' 일환으로 됐다.

특히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지능화 솔루션을 공동 기획했다는 점에서 정책-현장 연계형 R&D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

산학연 Collabo R&D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번 과제는 전북특활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 분야를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첨단 R&D를 통해 새로운 제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에는 전북지역 대표 중소·중견기업인 트라웍스㈜, ㈜어포스텍, ㈜오디텍, 두이엔지(주)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전북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의 연구진이 맡는다.



전북대학교 전북RICE지능화학신연구센터가 전북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공동 기획한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산업의 고도화' 과제가 산학연 Collabo R&D 컨소시엄형 과제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전북대 공대 7호관 329호에서 열린 2025 산학연 컨소시엄형 기획을 위한 기술공유 워크숍.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 가운데 ㈜어포스텍과 두이엔지(주)는 전북특활자치도 '레전드50+ 기업'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이다.

㈜어포스텍의 참여 연구원은 전북대 지능정보융합공학과 재직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연구과제와 학위과정을 병행 중이다. 이들은 단순 연구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형 전문인재 양성과 공동연구가 연결된 실천형 산학협력 플랫폼으로서 전북RICE사업의 모

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RICE지능화학신연구센터 이상준 부센터장(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은 "이번 선정은 지역지능화학신산업양성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로, 지역 산업과 교육 그리고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력 모델"이라며 "참여 기업과 연구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지능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활자치도교육청은 23~25일 강화도 및 서울 일원에서 '2025년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진=전북특활자치도교육청 제공)

'과거에서 배우고, 평화 실천하다' |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 25일까지 강화도·서울 일원서

전북특활자치도교육청은 23~25일 강화도 및 서울 일원에서 '2025년 전북·지역학생의회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의회를 비롯해 14개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및 임원, 협력교사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과거에서 배우고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은 '강화도에서 만나는 역사와 평화' 강연과 학생의회 상반기 의정활동 공유였다. 상반기 각 학생의회가 제안했던 정책과 캠페인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학생의회 운영과 지역 특성에 따른 고민을 나눴다.

이어 둘째 날은 평화전망대, 광성보 등 강화도 역사문화 체험에 나선다.

평화전망대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광성보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돌과 흙을 이용해서 만든 성이다.

이를 통해 평화공존 감수성을 함양하고, 분단과 갈등의 현장을 넘어서 과거를 성찰하며 평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립현충원 참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조별 활동 △뮤지컬 관람 등으로 채워졌다. 김수호 전북학생의회 의장은 "각 지

역의 학생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학생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 같다"며 "특히 강화도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학생 자치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역을 넘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원단체 "성희롱 메시지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냐?"

도내 한 교고서 학생이 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전송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아니다" 결론에 비판

전북특활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3일 전북특활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포함해 있었다. 이

에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성폭력처벌특별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영해왔다. 해당 SNS는 학생의 질문,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 '교육활동'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특성과 플랫폼의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권 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들이 속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해당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도 이날 "이번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냐'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난치성 천식 악화 과정 규명

전북대 여성국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공동연구

전북대학교 여성국 교수(수의대수의학과) 연구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악화되는 난치성 천식의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 세계적 학술지 'Allergy' (IF: 12.0)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제1저자인 박성욱 박사과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천식 악화 메커니즘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 교수팀은 바이러스 감염에 반응한 대식세포의 cAMP 보조 메신저



가 천식 악화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폐 조직 내 간질성 대식세포의 인플라마솜 활성화에 의해 천식이 악화된다는 신호 체계를 밝혀냈다. /장은성 기자

이 연구는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Eyal Raz 박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바이러스 감염이 천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치료 기술 확보를 위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천식 악화의 기전을 밝힘으로써 향후 치료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적 응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유정기 전북특활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김제시 포랑 세미나룸에서 초등 학교 교장(감), 교무부장, 수석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의 완성은 교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현장 교원들과 정책간담회

유정기 전북특활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김제시 포랑 세미나룸에서 초등 학교 교장(감), 교무부장, 수석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학력신장 등 초등교육의 핵심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에 유 권한대행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교원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먼저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참석 교원들은 과목 개설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업 영역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개별기반 탐구수업'과 관련한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평가 분야에서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어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항상도 검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세밀하게 진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 3회 실시되는 검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향후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력신장 지원을 위한 학습 플래너 활용에 있어서도 플래너가 다소 정형화돼 있어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고학년 여학생들의 정서와 취향을 반영해 디자인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유지되되, 실제 학교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면밀히 조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교육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401개교 여름방학 늘봄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여름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도내 409개 초등학교 가운데 401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 초등 1~2학년 1만7,008명이 참여한다. 이는 전체 초등 1~2학년 2만962명의 81.1%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남원·김제·임실·순창·부안 등에서 100% 운영하며, 군산·정읍·전주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높은 참여가 이뤄졌다.

다만, 늘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8개교는 학교 공사나 지역 특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청초, 전라초, 팔복초, 정읍초는 방학 중 대규모 시설 공사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다.

전주시청초는 '다함께돌봄센터', 전라초는 '지역 늘봄기관', 정읍초는 '담소 예술문화원'과 협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늘봄학교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교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여름방학에는 271개 학교가 학교 밖 늘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대상 학교의 66.3%에 해당된다.

특히 전주(82.7%), 정읍(79.4%), 장수(88.9%) 등에서는 지역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송실대, 기독교 정체성 바탕 고등교육 협력 간담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와 송실대학교(총장 이운재)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3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하고, 미래 지향적 고등교육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학은 모두 기독교 가치와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대학으로서, 신앙과 교육의 조화를 통해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송실대학교 이운재 총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송실대학교 총장단은 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중심 공간들을 직접 견학했다. /장은성 기자